

통일 칼럼

북중 국경지역 개발 신호탄

최 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빈번한 곳이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경 도시 신의주이다. 온실농장을 중심으로 주택과 공장, 상업·편의시설까지 조성하며 북한은 이곳을 지방발전의 본거지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도 적지 않다. 이곳을 거점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 과연 북한의 바람대로 국경지역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넓은 대지 위에 펼쳐진 대규모 온실단지 안에는 푸른 채소들이 가득 자라고 있다. 지난 2월 준공한 북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의 모습으로 여의도 15배의 규모다.

북중 접경지역인 압록강 위화도 일대에 조성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은 북한이 착공 단계부터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곳이다. 특히 위화도가 2024년 여름, 대규모 수해로 섬 전체가 물에 잠겼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신의주 지역은 대규모의 온실농장



정복규
논설위원

을 중심으로 농업 연구시설과 각종 공장, 주택, 편의봉사시설까지 함께 조성됐다. 김정은 위원장도 착공 이후 수시로 온실농장을 찾았습다. 지난해에만 다섯 번 방문했고 올해 첫 현지 시찰도 신의주로 갈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준공식을 열어 성과 부각에 나섰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신의주 온실농장에 역점을 두는 이유로 과거 온실농장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을 때에서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기존 온실의 경우 채소가 생산되더라도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북한은 일찍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중국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발을 맡았던 중국인 사업가 양빈이 탈세 혐의로 구속되고, 사업을 총괄했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마저 숙청되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은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신의주가 크게 개발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접경지역의 경

계가 활성화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물론 신의주 개발 지역에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사(NASA)의 지구관측 위성 '랜드샷 팔'(Landsat 8)이 올해 3월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 온실농장 가동률은 44%에 그쳤다.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일부 온실에만 난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중 경제협력으로 신의주 개발이 활기를 띠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북한은 평양 대 비평양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차이가 있고 농촌과 도시 간의 차이가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 계층들은 농촌 주민들이다.

온실농장을 중심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신의주. 과연 북한의 바람대로 지방발전의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부분이다.

독자제언

가정폭력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정폭력이란 한사람이 내재하고 있는 특이한 성향의 발현으로 인해 표출되는 가능성보다는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해 무더지고 자연적으로 학습한 결과물에 의해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에게 과거의 가족사 등에 관해 질문을 하며 가해자의 현재 심리상태 및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상담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의 과거 가족사를 통하여 어릴 적 부모의 폭력 속에서 자라거나, 또는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직접적인 폭력을 겪었던 경험 등에 대해 묻고 이러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폭력의 근원에 대해 질문을 하며 상담 후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어린 시절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청소년기 학교폭력과 성인이 되어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대

물림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신도 과거에 폭력에 노출되어왔던 피해자임을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자신의 고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내 재능들이 나오 이해 또 다시 가해자가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또 양산되는 악순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후 전문기관 및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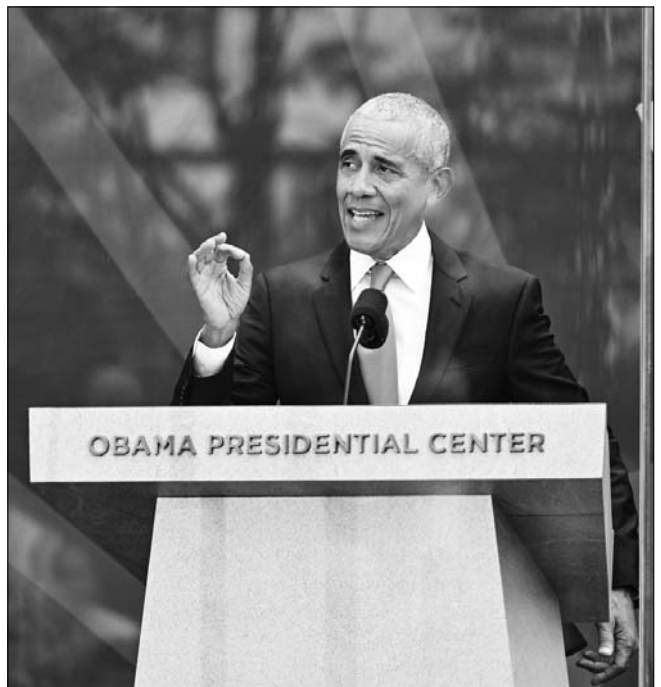
그리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내가 참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며, 지낸 끔찍한 경험들을 내가 다시 양산해낼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관계기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가정폭력을 개인의 가정사 문제에 공권이 개입하기 힘들다는 이점의 인식을 탈피하고, 신고 접수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정폭력의 제지, 응급치료, 상담안배, 임시보호 등 피해자의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근영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과과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바마 센터 개관식... 연설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 센터 개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설

변화하고 있는 결혼식 문화

결혼식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웨딩업계에서는 주례 중심 예식 대신 신랑·신부와 하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참여형 웨딩'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웨딩업계에 따르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주례 중심 예식은 점차 감소하고, 전문 사회자와 혼합하거나 아예 주례 없이 진행되는 방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예식장에서는 주례가 맡아오던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도 사회자가 진행하거나 간소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결혼식은 교수와 종교인, 지역 원로 등 권위를 가진 인물이 주례를 맡아 신랑·신부에게 덕담을 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식과 격식보다 분위기와 추억, 참여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MZ세대가 결혼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SNS 기반 영상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국내의 웨딩 문화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예비부부들이 자신만의 결혼식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스물웨딩 문화 역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전문 웨딩홀이 아닌 소규모 공간과 레스토랑, 야외 장소 등을 활용해 가까운 가족과 지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역 웨딩시장의 현실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방 웨딩홀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예식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여서 긴 이벤트나 특수 연출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 출구조사 오류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EP는 "지상파 3사의 선거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를 한 3개 여론조사기관 중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서울·대구·울산·충북 4개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과정에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된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됐다.

KEP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인소스코리아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 수행했다. 최종 예측 결과는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출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도출한다.

KEP는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도출됐으나 각 지역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는 한국리서치의 업무상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3사는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 선거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KEP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6·3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한국방송협회 산하에 KEP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